고3 인구, 2020년까지 3분의 1로 준다

'입시지옥' 해소될까

만 17세 6년만에 첫 감소…광주·전남 올 1000명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연령인 만 17세 인구가 6년 만에 감소했다.

광주·전남에서 올해 1000여명에 육박하는 수험생(재학생 기준)이 준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만 17세 인구가 2020년까지 10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대학입시 경쟁이 완화할지 주목된다.

광주·전남 고교 신입생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2020년에는 각각 34.6%(8189명), 전남은 30.9%(2만2455명) 감소할 것으로 점쳐졌다.

8일 통계청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만 17세 추계인구는 올해 69만70217명으로 작년보다 4343명 줄었다. 고3 수험생 대상 연령인 17세 인구가 감소한 것은 2005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올해 감소세로 돌아선 17세 인구는 2020년까지 10년 연속 줄어든 뒤 2021년 867명 늘어나 감소세를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의 경우 올해 고교 신입생이 2만3624명이었으나 오는 2020년에는 1만5435명으로, 전남도 7만2422명에서 4만9967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7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이들이 출생한 1996년을 전후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995년 1.7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하락했다.

17세 인구 감소로 대학 입시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69만3634명으로 작년보다 1만8593명 줄어든 점이 경쟁 완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각각 작년보다 229명, 757명 줄었다.

그러나 대학 입학정원이 줄어들어 입시 경쟁률이 하락세를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과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56만8725명으로 작년보다 3157명 줄었고, 2002년 이후로는 8만8058명 줄었다. 교과부는 내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정원을 2918명 감축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구청장 항의 방문
5개 구청장 공동 성명
광주문화재단도 반발

광주시의회 예산삭감 후폭풍

남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기 위해 8일 광주시의회를 방문한 최영호 남구청장이 남구 지역구 시의원인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과 장인균 광주시 정무특보 등(오른쪽부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숨 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 예결위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을 203억원 삭감한 데 대한 해당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시는 8일 광주시의회에 본회의 예산 수정동의안 제출을 요청해 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삭감 예산이 얼마나 부활할지 주목된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8일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국비가 확보된 남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관련 예산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다목적체육관은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을 할 수 있게 전액이 아니더라도 5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 등 구청장 5명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지역민이 원하고, 정부도 인정하는 자치구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자치구 사업 중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문화재단도 자료를 내고 "예결위가 문화재단 적립기금 10억원을 삭감한 것은 문화수도 광주로 가는 길과 역행된다"고 삭감 예산 부활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본회의 예산 수정동의안 제출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가 본회의에서 증액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예산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 윤 의장은 이날 "광주시가 삭감된 사업 47건 중 7건 사업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그러나 앞서 의회 점거 농성과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가한 남구청 공무원과 빛고을 노인복지재단 직원 등에 대한 강운태 시장과 최영호 남구청장의 사과와 함께 문책 약속을 요구했다.

윤 의장은 "의원들이 이 같은 사과와 문책 약속을 받아들일 경우 수정동의안 제출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여전히 수정동의안 제출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9일 본회의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갈대 이용 바이오에탄올 생산 성공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경상대와 공동으로 자생 갈대를 활용, 순도 99.9%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갈대는 비식량 자원이지만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가능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도 나주, 보성, 강진, 장흥 등에 자생하는 갈대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적합한 원료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상대 연구팀과 바이오에탄올 추출 기술 개발에 나서 성공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주요 성분이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순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로서 상용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씨 "디도스, 단독범행" 자백

경찰 수사결과 정리할 듯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씨가 이번 사건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공씨가 오늘 새벽 조사에서 심경을 바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면서 "공씨는 자신 이외에 윗선이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것이 최구식 의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젊은 층 투표율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투표소를 못 찾게 하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범행 배경을 설명했다.

공씨는 "술자리에서 선관위 홈피 공격 같은 농담이 나왔는데 (평소에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강씨 생각이 났다"면서 "이때 디도스 공격을 할 생각이 처음으로 생겼다"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공씨는 10월25일 밤 12시를 전후한 시점에 공격을 실행하라고 강모씨에게 전화로 지시한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인 김모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 등 소위 '윗선'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수사결과를 정리하고 사건을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면 '정치권 핵분열'서 계속

통합과정에서 손 대표와 줄곧 갈등을 빚어온 박 전 원내대표가 이날 한 방송에서 "앞으로 손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민주당 내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만일 전당대회에서 통합이 무산된다면 분당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으로는 우선 당 지도부의 '소통부재'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기득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현재 전당대회 통합 결의에 반대하는 세력은 영남권 등의 원외지역위원장과 호남에서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은 통합 후 공천 탈락이라는 불이익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 과거 열린우리당 분당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도 이번 갈등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열린우리당 분당으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구 민주계 인사들이 이번 통합을 분당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은 '현역 정치인의 위기'를 '호남 정치의 위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FTA 농어업 대책 3200억 추가 지원 추진

한나라당은 내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농어업·축산업 피해보전대책으로 3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농어촌대책특위 위원장인 홍문표 최고위원은 8일 "39개 농수축산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FTA 농어업 피해보전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대책특위가 9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추가대책에는 ▲정책자금 적용금리 3%에서 1%로 인하 ▲쌀 목표가격 및 보전율 인상 ▲대규모 종돈장 수출산업화 ▲농기계 임대법 및 사이버농업육성법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위 관계자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이번 보완대책으로 3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대책의 반영을 위해 정부측과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요구하는 보완대책을 정부가 수용하면 FTA 농어업·축산업 분야 지원규모는 22조1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기계임대법도 제정할 것"이라며 "농가에서 농기계를 쓰는 날이 연 5~20일 수준인데 500만~600만원 수준인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지난 10월 말 여·야·정이 합의한 농어업·축산업 분야 피해보전대책의 조속한 실현을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당시 여·야·정은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3개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RS로 이웃 사랑을 060-700-1212 〈한통화 2000원〉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제-110705-중-22886호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JCI인증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암치료 수도권 대형병원과 어깨 나란히
암정복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이루어 가겠습니다.
www.cnuhh.com
대표전화 : 061) 379-7114/8114
전화예약 : 061) 379-7000/800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경매투자
◆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돗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곗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득,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채준) 010-5311-0086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α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540호) 대표1544-5248 | 담당 010-7112-3135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 (빙의.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불면증 / 학습증진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확실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최면요법으로 빙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 010-3747-6606